

# 공사출범 후 최악의 노사관계

## 노사합의 불이행 전국 곳곳에서 파열음, 철도노조 21일 전국집회 개최

철도공사의 노사합의 불이행으로 인해 전국 곳곳의 철도현장에서 노사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는 지난 12일 의장단 회의를 열어 "철도관료들의 시대착오적인 노사관으로 공사출범 이후 최악의 노사관계가 형성됨으로써 철도현장이 파국으로 치달아 가고 있다"며, 21일(목) 13시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노사합의 이행! 구조조정 분쇄!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을 결정하였다.

장시간의 초과근로와 월1회 휴일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수도권전동열차 조합원들이 지난 6월17일부터 사복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전기분야 자회사위탁보수 공사를 일방적으로 시행하여 중앙노사협의회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충북선, 태백선에 일방적으로 1인승무를 시행하여 제전기관 차지부가 2달여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년 하루 휴가를 달라, 법정최저임금이라도 받게 해달라는 철도매점노동자들이 150여일째 휴업투쟁을 전개하고 있으며 교섭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금 철도현장에 공사출범 이후 최악의 노사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데에는 구시대적인 관료성에 젖어 있는 철도경영진의 낡은 노사관이 주요한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앞에서는 신뢰나 화해니 허울좋은 말을 외우다시피 하면서도, 돌아서서 합의사항조차 지키지 않으며 노동자를 여전히 지배와 통제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는 철도관료들의 시대착오적인 시각이 전환되지 않는다면 철도 노사관계의 앞길은 파국을 피할 수 없다.

### 해고자 두 번 올리는 적성검사 폐지해야

철도공사는 12·3 특별단체교섭에서 노사간 합의한 해고자복직을 신규채용절차라는 명목으로 적성검사를 실시해 해고자복직을 사실상 거부하였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지난 6월부터 철도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전정부청사 앞에서 농성집회에 돌입하였으며, 14일 집중집회를 개최하는 등 '해고자를 두 번 올리는 적성검사'를 철폐시키기 위해 투쟁의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 부산지역 차량·운수, 부산역 천막 농성투쟁

일방적인 부산·가야차량 사무소 통폐합으로 부산지역 차량조합원들이 '날치기 직제개편 철회'를 요구하며 2주일째 천막농성을 전개하고 있다. 부산지역 운수조합원들은 '노동자감시 인권침해 역모니터링 폐지'를 요구하며 13일부터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철도공사 부산지역본부는 작년 부산지방본부와의 노사합의를 무시하고 개인별 역모니터링 결과를 철도 사내 통신망을 통해 공개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 '화장이 짙어 불쾌감을 준다', '웃는 얼굴이 어색하다'는 등 인권침해에 가까운 감시를 한 것으로 드러나 조합원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다.

## 사과는 해도 철회는 무해?

'일방시행 후 배째라식' 잘못된 관행,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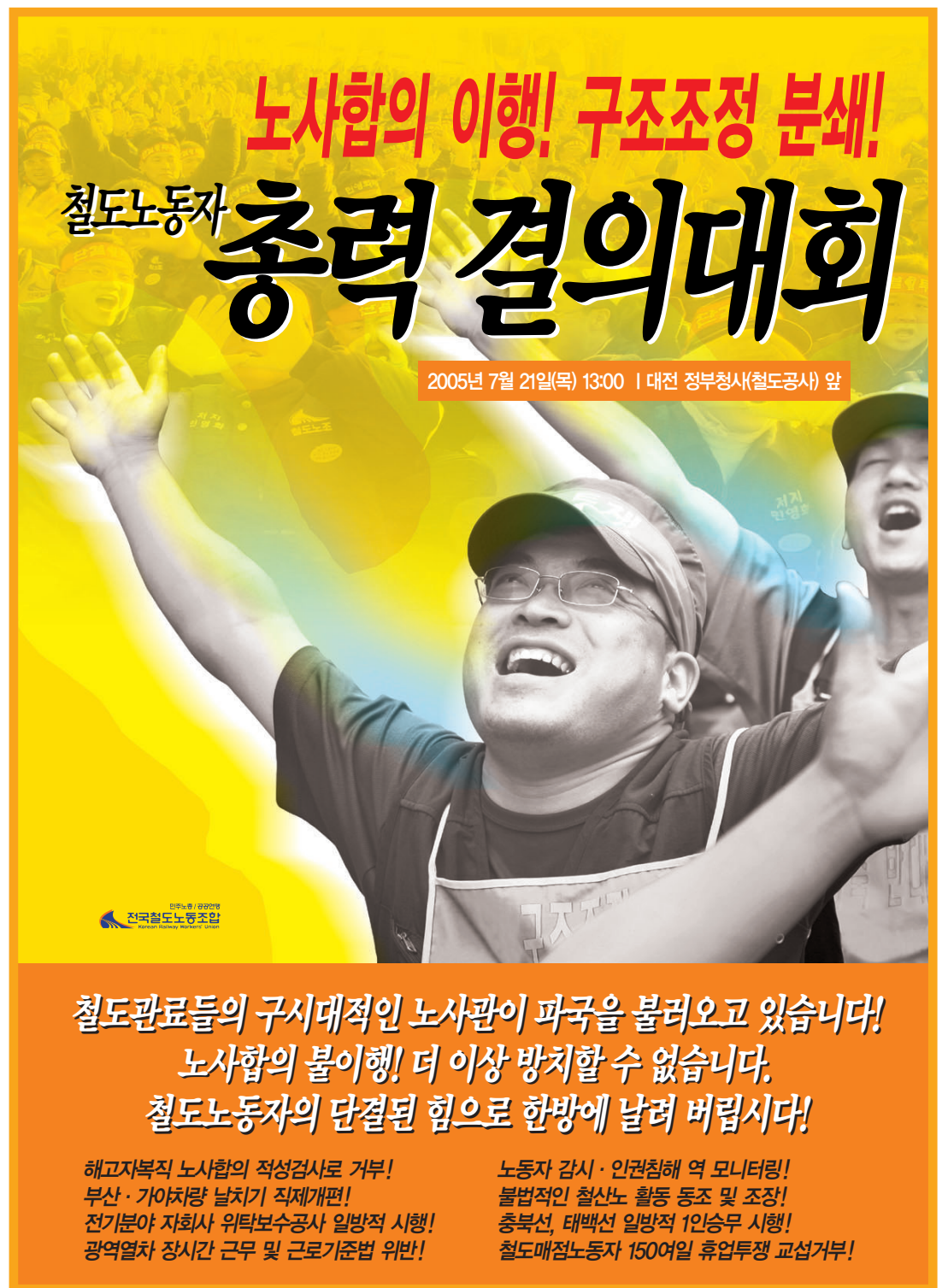
박철수 | 부산차량 지부장

철도공사가 지난 6월27일 일방적인 직제개편을 통해 부산차량사무소와 가야차량사무소를 통합하면서 촉발된 부산지방본부와 차량조합원들의 부산역 농성투쟁이 2주일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다. 이번 직제개편은 첫째, 노사간 사전협의가 전혀 없이 일방적으로 단행되었고, 둘째, 차량분야 인력분제의 뜨거운 쟁점인 단인공 기준과 사무소별 정원 등에 대한 노사간 의사소통이 전무한 가운데 공시측이 자의적으로 결정한 소속별 정원 대비 현원 과부족을 조직통폐합을 통해 인위적으로 해소하려 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직제는 종속적인 직제개편에 대하여 사과와 뜻을 전달하고 있지만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7월13일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팽정광 기획조정본부장은 이번 직제개편이 '노사합의사항이 아니라'며 '이미 조합에 통보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치 않아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조합은 이번 직제개편에 관한 한 더 이상의 실무적인 협의가 불필요함을 공사측에 전달하고 향후 농성투쟁을 장기전으로 준비하는 한편 투쟁강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전근대적인 철도경영진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불신을 전달하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이철 신임사장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조합은 관리지원분야 인력의 현장총원이 라는 특단협 합의에 기초하여 정기간접 시기에 차량분야의 적정인원 산정을 둘러싼 공방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뒤늦게 맞은 풀이, 특히 출지에 사무소 간판이 내려진 가야차량 조합원들은 엄청난 상실감과 분노에 치를 떨고 있다. 차량사업본부장을 비롯해 철도공사의 경영

진은 종속적인 직제개편에 대하여 사과와 뜻을 전달하고 있지만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7월13일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팽정광 기획조정본부장은 이번 직제개편이 '노사합의사항이 아니라'며 '이미 조합에 통보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치 않아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 조합은 이번 직제개편에 관한 한 더 이상의 실무적인 협의가 불필요함을 공사측에 전달하고 향후 농성투쟁을 장기전으로 준비하는 한편 투쟁강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또 전근대적인 철도경영진에 대한 조합원들의 높은 불신을 전달하고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한 이철 신임사장의 결단을 촉구하였다.



**노사합의 이행! 구조조정 분쇄!**  
**철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  
2005년 7월 21일(목) 13:00 | 대전 정부청사(철도공사) 앞

**철도관료들의 구시대적인 노사관이 파국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노사합의 불이행!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철도노동자의 단결된 힘으로 한방에 날려 버립니다!**

해고자복직 노사합의 적성검사로 거부!  
부산·가야차량 날치기 직제개편!  
전기분야 자회사 위탁보수공사 일방적 시행!  
광역열차 장시간 근무 및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자 감시·인권침해 역모니터링!  
불법적인 철산노 활동 등 및 조장!  
충북선, 태백선 일방적 인승무 시행!  
철도매점노동자 150여일 휴업투쟁 교섭거부!

# 중앙노사협의회

## 해고자복직, 일방적인 직제개편, 전기분야 자회사 등 현안사안 해결 안되면 본협의 결렬



지난 13일 오후 3시 철도공사 구청사 6층 회의실에서 2005년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1차 본협 의가 열렸다. 지난 6월 8일부터 개최된 중앙노사협의회는 본

야별 실무협회가 6월 21일까지 진행된 이후 전기분야의 자회사 계약과 관련한 노사합의 불이행이 원인이 되어 교착상태에 들어갔다.

교착상태에 빠진 중앙노사협의회를 진행하고자 최근 철도공사의 노사합의 불이행으로 전국 곳곳에 파열음이 발생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김영훈 철도노조 위원장과 이철 철도공사 사장을 대표위원으로 하여 13일 중앙노사협의회 1차 본협회가 열리게 되었다.

본협에서는 수렴된 요구안을 다루는 노사합의 의회 방식이 아니고, 현장에서 발생한 현안을 해결하고 중앙노사협의회를 계속 진행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시험대로 현안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 ▶ 해고자 복직 문제

우선 정부청사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해고자 복직문제를 철도노조 대표위원인 위원장이 현안으로 제출하였다. 12월 3일 특단협 합의에 의한 5명의 해고자 복직은 노사합의에 의해 복직하기로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에 따라 당연히 복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서는 복직을 위한 의제적인 절차에 한정되어야 하며 적성검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사측은 12월 3일 특단협 합의사항을 존중하며 빠른 시일내에 복직시키는 것이 공사의 입장이며, 복직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절차에 대해서는 사무처장과 노사협력단장을 대표로 하는 실무협회에서 논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 ▶ 일방적인 직제개편 문제

두 번째 현안으로 부산차량사무소와 가야차량사무소를 통폐합하는 일방적인 직제개편에 대한 현안을 다루었다.

철도노조는 일방적인 사무소 통폐합은 당해 소속 직원들의 신분과 근로조건을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으로 노조와 협의없이 진행된 것은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위반이라는 것을 지적하며, 원점에서 재논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측의 입장은 사무소가 통폐합됨으로써 근로조건이 변화된 것이 없다. 근로조건 변화가 없다면 4·20단체에 의해 통지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철도노조에 문서로 통보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단결위반이라는 철도노조의 입장과 공사의 단협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 이견을 드러냈으며, 이에 철도노조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조합원의 힘을 바탕으로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 ▶ 전기분야 자회사 문제

세 번째 현안으로 전기분야의 자회사문제를 지적하였다.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 특단협 때 외주용역화 및 자회사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였고, 3월 15일 전기분야의 노사합의과정에서 외주용역과 관련하여 타당성 및 업무한계 등에 대하여 노사가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2006년도에 반영하기로 한 합의를 철도공사측이 불이행하였다"고 지적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철도노조 김영훈 대표위원은 방만한 자회사 운영이 퇴직관료의 자리 마련 등의 수단이 되는 것에 대해 지적을 하고,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던 만큼 자회사에 대한 계약은 신중해야 하며,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고 시행되는 '자회사 계약'과 관련하여서는 재논의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측은 인력부족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책임회피로 일관하다가, 결국은 철도노조와 실무협의를 통하여 자회사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세 가지의 현안 외에 부산지역에서 개인의 인격까지 침해하며, 감시의 도구로 전락한 역모니터링의 문제를 지적하며 모니터링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촉구하였다.

1차 본협에서는 현안을 다루고 이미 요구안으로 제출된 의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다. 단체협약과 노사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철도노조는 "현안 사항이 해결되지 않고는 중앙노사합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밝혔다.

팽팽한 의견 차이를 보인 부산, 가야차량사무소 통폐합과정의 일방적인 직제개편문제는 투쟁으로 돌파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 해고자 복직, 전기분야 자회사 문제가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협의를 통하여 해결되는 추이를 확인한 이후에 중앙노사협의회 재개 여부가 결정지어질 전망이다.

# 정기단협 준비 일정 확정

## 8월11일 임시대의원대회, 단협 투쟁계획 및 요구안 확정키로

2005년 철도노조 정기단협 준비 일정이 확정되었다. 철도노조는 지난 12일 의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오는 8월 1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 정기단협 투쟁계획 및 요구안을 확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5.31 정기대의원대회에서 '05 단협투쟁의 기본방향을 설정했던 철도노조는 정기단협 준비팀 구성 및 주요 의제에 대한 중점회의의 심의를 거쳐 6.14 직종을 고려하여 실무준비팀을 구성하였고, 27일 현장에 설문조사지를 배포한 바가 있다.

12일 의장단회의에서는 현재 수거중인 설문조사지를 바로 분석에 들어감과 동시에 현재 진행중인 현안투쟁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하면서 20일경 요구안 초안자료를 현장에 배포, 지방본부 순회토론회 등을 통해 현장조합원과 함께 대중적인 토론회를 거쳐 요구안을 다듬어 가기 위해 당초 7월27일 예정이던 임시대의원대회 일정을 8월 11일로 수정하였다.

한편 철도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 전날인 8월10일 전국지부장회의를 이틀간 개최하여 요구안 검토와 함께 투쟁, 교섭, 조직방침 등을 심의하기로 하였다.

- ▷ 7월 20일(수) : 단협 조합원 설명자료집 배포
- ▷ 7월 25일~8월 5일 : 지방본부 순회 토론회
- ▷ 7월 28일(목) : 3/4분기 중앙위원회
- ▷ 8월 10일~11일 : 전국지부장회의(단협 투쟁 계획안 및 요구안 검토)
- ▷ 8월 11일(목) : 임시대의원대회(단협 투쟁계획안 및 요구안 확정)



### 정기단협 준비일정

#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 완료

## 조합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차별통제 무력화

철도공사가 지난 6월 29일 노사협의 없이 성과상여금을 일방 지급하였으나 철도노조의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이 승리적으로 완료됨으로써 철도공사의 현장 차별통제 시도가 무력화 되었다.

“라고 밝히는 등 공사출범이후 성과급을 통한 현장 차별통제를 조합원의 단결된 힘으로 돌파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명이 반납에 동참했다. 운수분과는 반납이 완료된 약23억1천만원을 직급별로 균등분배를 완료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5월27일 전국지부장회의를 통해 운전, 차량, 운수, 전기직종별로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을 결의한 이후, '과연 반납이 잘 될 것인지' 우려를 일거에 씻어내는 조합원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균등분배투쟁을 승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 운전분야**  
총5,268명의 조합원 가운데 신규자 포함 5,241명이 성과급 균등분배 서명에 동참했다. 운전분과는 신규자를 제외한 4,813명이 반납한 약 29억6천만원을 직급별로 균등분배했으며, 1인당 19,000원씩을 모아 신규자 455명에게 성과급을 20만원씩 지급했다.

**· 차량분야**  
조합원 3,559명(신입사원포함) 중 3,074명이 반납에 동참했다. 차량분과는 반납이 완료된 약17억8백만원을 직급별로 균등분배를 완료했다.

**· 전기분야**  
조합원 2,661명(신입사원포함) 중 1,638명이 반납에 동참했다. 전기분과는 반납이 완료된 약 8억7천7백만원을 직급별로 균등분배를 완료했다.

**· 운수분야**  
조합원 6,332명(신입사원포함) 중 4,169

### 성과급 균등분배 투쟁을 마무리 하며

#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이성중 | 순천전기 지부장

철도청에서 한국철도공사로 전환되면서 우리는 스스로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다. 그 변화 중에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하면서 시작되었다. 우리지부는 처음부터 균등분배 투쟁의 정당성에 대해 어느 정도 선전활동이 되어서인지 큰 거부감은 없었던 것 같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참여하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은 올해 참여하지 않은 조합원은 앞으로 배제를 시켜야 하며, 내년에는 금액차이가 크므로 조합에서 제도적으로 틀을 만들어 약간의 강제성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 한다.

무엇보다 우리 지부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고, 성과상여금 균등분배 투쟁이나 자회사 철회투쟁이나 이 모든 것은 지부가 자기역할을 열심히 한다면 우리 지부조합원들은 충분히 동참하고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전기분야는 전체 지부가 참여하지는 못하였지만 14개 지부가 참여하여 반납 조합원 대비 72%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조합원들의 생각은 반납투쟁에 참여하면서 올해는 금액이 적기 때문에 A등급이라도 큰 거부감 없이 동참을 하였는데 과연 내년에 금액차이가 컸을 때 참여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다.

그리고 지금까지 균등분배 금액을 지급 받은 조합원들 중에 항의하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으며 생각보다 많이 줄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다.

끝으로 우리 전기분야 전체 조합원들이 균등분배 투쟁에 참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2005 정기 단협 10문 10답

# “해고자 원직복직 온전한 주5일제 쟁취 비정규직 차별 철폐 외주화·구조조정 분쇄”

1. 정기단협 준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지난 5월31일 정기대의원대회를 통하여 '06년도의 방향과 의제들에 대하여 확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중앙집행부는 6월14일 직종을 고려하여 현장간부들과 함께 '요구안 실무준비팀'을 구성하여 한달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6월 27일 조합원 설문조사지를 배포한 바 있으며 7월 8~9일 양일간 중앙상징회의에서 1차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쟁의 과정에서 해고되었던 해고동지들을 반드시 정든 일터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야 되었습니다.

두번째는 온전한 주5일제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지난 특단협에서 이월된 교번근무자들의 새로운 근무체계를 마련하는 것과 교대분야의 지정휴일을 실제로 쉴 수 있도록 할 것, 야간 무급휴게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전환하고 지정휴일 1일을 추가확보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 정기단협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5·31 정기대의원대회 이후 실무준비팀 구성의 어려움이 있어 다소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세번째는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철도에도 이미 3,000여명의 직접고용비정규직이 상시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지만 정규직에 비하여 대단히 열악한 조건에 있으며, 동일노동동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미 전사회적 과제인 비정규직의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투쟁의 첫 포문을 여는 요구가 될 것입니다.

3. 2003년 4.20 정기단협 효력은 언제까지 인가요?  
2005년 4월20일까지 유효기간이지만 단협에 의해 자동연장시한이 3개월이며,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협이 체결되지 않으면 어느 일방이 6개월전에 협약해지를 통고하고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2006년 1월중순까지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고 그 이내에 정기단협을 갱신하면 됩니다. 조합에서는 10월말 경 '05정기단협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주요 현안사항으로 비핵심업무 외주화와 성과주의 시스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하반기 직무진단에 철도노동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하는 것과 무분별하게 양산된 자회사, 외주화를 최소화하고 향후 계획하고 있는 외주계약 등에 대해서는 저지하도록 하는 구조조정 분쇄투쟁 등이 주요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섯번째, 인사·여성·노동안전·복지 등 공사체제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불합리한 것과 조합원의 요구를 반영한 요구인들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4. 단체교섭이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잡아시다 시피 '단체교섭'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의 하나입니다. '단체교섭권'은 단체교섭을 전제로 하지 않은 단결이나 쟁의행위가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의 중심적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섭의 주요 내용으로 2년마다 갱신하는 '단체협약의 체결'과 해당시기의 주요 노동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는 '현안사항에 대한 교섭'이 이루어 집니다.

7. '철도를 국민에게 돌려주자!' 던 공공철도 요구안은 어떤가요?

작년 특단협 투쟁과정에서 철도노조는 '철도를 국민에게 돌려주자!'고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총력투쟁을 앞두고 여론용 구호가 아니었는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올해는 보다 구체적인 안과 목표를 가지고 철도노동자가 철도를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더욱 치열하게 투쟁해야 합니다. 철도상업화 저지, 공공성 강화, 철도신규노선에 대한 외자개방 철폐, 공공역사 요구안을 비롯해 주중 고속철도 요금 20%인하, 사회빈곤층 50% 할인 도입등을 시민사회와 함께 투쟁해서 반드시 쟁취해야 합니다.

단체교섭은 해당시기 조합원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2·27특별단체교섭과 협약은 정부의 '철도민영화' 공세에 맞서 국민철도를 사수하는 투쟁이었다면, 2003년 체결한 4·20 단체교섭과 협약은 50년 여운의 굴레를 벗고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교섭을 진행한 첫 단체교섭과 협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04년 12·3 특별단체교섭은 '체제전환과 주5일제 시행'에 따른 특별단체교섭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8. 임금교섭은 언제하나요?  
특단협 합의를 통해 매년 1월 그해의 임금을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05 정기단협에서는 임금교섭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오는 10월경 임금교섭준비팀 구성, 설문조사등을 진행하여 12월에 교섭에 돌입할 예정이며 내년 1월경 교섭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부투자기관 동종업종에서는 그해 임금을 대략 그해 6월경에 타결지어 왔고, 최근에는 그해 임금을 그해 연말에 교섭하여 예비비를 확보하는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기도 합니다.

5. '05 정기단체교섭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지난 '04년 12·3 특별단체교섭을 통하여 고용·직제·인사·근무형태·노동시간과 휴일·휴가 등 체제전환에 따른 방대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교번분야의 근무체계'에 대하여 미결과제로 이월되었고, 체제전환 이후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해야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단협에 대한 보완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9. '05 단협요구안은 어떻게 확정합니까?  
6월 27일 현장에 배포된 설문조사지를 수거중에 있으며, 수거되는 대로 코딩을 진행 중입니다. 설문조사 결과는 이후 요구안 및 투쟁방향에 적극 반영될 것입니다. 또한 20일경 요구안 초안자료를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며, 25일~8월5일 중 지방본부 순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8월 10일 전국지부장회의를 거쳐 8월11일 임시대회를 통해 확정할 예정입니다.

6. '05 정기단체교섭의 주요 요구안을 소개한다면?  
'06년교섭의 주요 의제들은 수차례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제들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그중에서도 선후가 있기 마련이고, 핵심적 의제들은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쟁취목표입니다. 지속적인 현장조합원들과의 토론회와 각급회의를 통하여 정화될 것이라고 하며 준비팀에서 검토한 것을 간단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 향후 일정은?  
8월 1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하여 '05 정기단협 투쟁계획과 요구안을 확정하면 조합에서 정기단협 감사단을 구성하여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출간한 현장설명회와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쟁계획은 다시 조합원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05 정기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조합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새로운 단결을 부탁드립니다.

첫번째는 해고자 원직복직입니다. 우리는 지난 체제전환과정에서 수많은 투쟁을 전개하였고, 총 83명에 달하는 많은 동지들이 해고되었습니다. 최근 노동조합에서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고에 신음하고 있으며, 여러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공사체제 출범 첫째 지난날 투